

сахалин州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5월 21일(금) (음력 4월 10일) Пятница 21 мая 2021г. № 20 (1193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5월 22일에 сахалин州 다수 학교들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종소리> 행사를 펼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업 기간 동안 학생 여러분들은 유익한 지식을 얻었고, 진정한 친구를 찾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풍성하고, 하고픈 것이 많은 성인으로서의 개방된 삶으로 걸어가십시오.

올해 сахалин州의 마지막 종은 9학년의 5,500명, 11학년의 2,500명을 위해 울립니다.

이는 여러분들을 교육하는 데 큰 기여를 하시고, 장기간 내내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곧이어 여러분은 시험을 치르고 장래 계획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сахалин州의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들은 졸업생들에게 130개 이상의 직업과 전문직을 비롯해 복수전공 졸업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сахалин 國립대학의 이 특별한 기획은 сахалин州와 國내 우수 대학들 중 한 대학과 병행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망적인 것은 сахалин州 기업들에서 가치 있고, 임금 수준도 높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сахалин州에서 청년들의 삶을 위한 편안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길로 가든지 그 길이 여러분의 집으로 인도하여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마지막 종이 여러분에게 찬란하고 있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길 바라며, 모든 시험도 성공적으로 잘 치르길 기원합니다! **сахалин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сахалин IT파크 개장

сахалин州의 전문가와 기업들과 고도의 디지털 기술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디지털 작업환경으로 시민들에게 국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위해 조성한 모든 것은 특별히 사람들의 복리를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카드와 스마트폰으로 국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학교 입학과 병원 진료를 위한 시간 예약, 복지 혜택 활용 등이다. IT파크에서는 필요한 앱들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새로운 작업 환경 개장의 일환으로 <경제 발전의 요소로서의 정보자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주 정부 대표를 비롯해 '전략 기획청'과 고등교육 분야, 산업체 대표들이 сахалин의 문제들을 인공지능과 자료 처리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전략 기획청 디지털 개발센터의 책임자인 웨라 아다예와는 "대부분의 디

지탈 활동의 방향은 대중교통 운영 개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등 복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이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따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명확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T파크 논의를 통해 재능 있는 청년들이 전망적인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거라 보고 있다.

сахалин州에서 주 정부의 지원으로 'сахалин州 개발공사'가 첫 디지털 작업환경을 조성했다.

"스타트업 기획 개발 및 지원을 위해 아이디어에서부터 지역 및 해외 시장에서 고도의 기술생산 도입까지의 제반시설이 갖추어졌다. IT파크의 면적은 500m<sup>2</sup>, 10개 이하의 업체를 수용할 수 있다. 업무 공간, 회의실, 사무실, 대용량 컴퓨터 장비가 있다."고 안드레이 메드웨제브 сахалин州 개발공사 사장이 말했다.

сахалин州는 디지털 전환으로의 세부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сахалин州를 시범으로 연방 내 타지역에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 단신

#### 트루트네브 부총리, сахалин 방문

지난 20일(목) 러시아 정부 부총리 유리 트루트네브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сахалин을 방문해 주택 건설 발전 관련 회의를 비롯해 일련의 회의를 했다.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의 제반 시설을 시찰하고 <고르니 워즈드흐>관광스포츠 단지(스키장)를 방문해 앞으로 이 스키장이 러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수 리조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 сахалин, 학교와 유치원에서 테러 훈련 진행

сахалин 및 쿠릴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테러에 대응하는 실전 교육이 진행된다.

테러위원회와 сахалин州 비상대책본부의 합동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런 결정이 언급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부 기관과 경찰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сахалин州 학교 및 유치원의 전문가들이 실전 훈련의 일환으로 테러 행위 시, 인질극 발생 시, 의심스러운 물건 발견 시 대처법을 훈련한다. 또한 보안업체의 반응과 경찰청의 비상 상황 대처도 점검한다.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극단주의적, 테러 단체에 관심을 갖는 문제를 설명하고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법 준수에 대한 학급회와 전 학교 학부모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주내 의료 기관들에 정밀 검진 프로그램 실시

сахалин州 65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진료 확대가 실시된다. 현대적 의료센터가 이번주 티몴스코예에 개설된 가운데 현재 정밀 진단 프로그램이 몇몇 지역에 도입되었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2호 보건소는 5개 항목 (동맥 고혈압, 간 질환, 비뇨기 시스템, 안과 병리, 혈전 예방)의 정밀 진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4호 보건소에서는 노년기 환자들에게 4가지 건강 프로그램('건강한 척추', '골다공증 조기 발견', '건강한 심장', '비뇨기학')을 제공한다. 다음 달에는 이런 방안을 더 확대할 예정으로 홈스크, 포로나이스크, 오하의 보건소에서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실시한다.

#### сахалин州, 코로나19 상태

5월 19일(수) сахалин州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명으로 확인, 퇴원은 17명이라고 밝혔다.

5월 19일 현재 сахалин州에서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22,773명이고, 퇴원자는 22,351명,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는 48명, 현재 37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70,039명이 백신을 접종했으며, 그중 58,00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고, 41,318명이 백신 접종을 예약한 상태라고 сахалин州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새고려신문

###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сахалин 韓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한국 법무부, 국내 체류 중 사할린동포 2세에게 복수국적 허용

지난 13일(목) 한국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국적과 주관으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법무부 국적과 측에서는 송소영 과장(변호사), 정금심 사무관(교육학 박사), 문아라 주사, 사할린연합회 측에서는 권경석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장, 주훈준 회장(안산), 문정현 회장(인천)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에서 사할린동포 2세에게 한국 국적 판정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권경석 전국연합회장은 "현재 한국 내에서 체류하는 사할린 동포 2세가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으로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 대상으로는 사할린 동포 2세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측에서 사할린 동포 2세가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이 희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권 회장에게 법무부가 제공한 사할린동포 국적에 관련 정보는 3면에, 법무부 국적과 메시지는 아래에 게재합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동포 여러분! 국적과 사무관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할린동포 1세의 자녀(2세)는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판정을 받으면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적판정을 신청하시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1년은 한국에 거주하셔야 국적심사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부 국적과-**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조사 계속

러시아 연방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조사가 세 번째 실시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중소기업들은 발전하고 있다. 사할린 경제에서는 70% 이상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6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업들은 지역 경제의 성취도와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결정하는 요소다. 그러므로 국가는 중소기업, 개인 기업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과 국가 정책, 해당 경제 부문의 지원을 초점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채택된다.

중소기업 부문은 항상 유동성이 뛰어나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자주 새로운 조직과 사업 분야 및 방법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실제 종사하는 업종, 그 규모와 매개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또한 전면적인 관찰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지방자치체의 통계 정보를 얻게 된다.

경제조사 자료는 중소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주의 '사업 전개도'를 보고 경쟁시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어떤 분야를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분야가 미래에 좋은 전망 될 수 있으며,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파악하게 된다. 사할린 통계청은 2020년 전자방식으로 보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는 전문 통신 사업자와 웹 수집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류상 보고서는 보존되고 있다.

사할린 지역에 등록된 모든 중소기업체들이 자

신의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은 반드시 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러시아 전체 및 러시아 연방의 행정자치체 내 중소기업 활동의 주요 경제 특성이 형성된다.

첫 번째 예비 결과는 2021년 12월 러시아 통계국 사이트에 게재될 전망이다. 상세한 활동 정보를 포함한 최종 결과는 2022년 6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가는 기관과 기업이 경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기업에게 정보자료의 완전한 기밀성을 제공하여,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보호, 세무 및 규제 기관으로의 정보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있다. 확보한 1차 자료는 러시아 중소기업 분야, 사할린 지역, 자치단체 등에 대한 요약 정보 형성을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지난 1월부터 5월 17일까지 중소기업 법인이 86%(러시아 81%, 극동지역86%), 개인 기업가 68%(러시아 71%, 극동지역 73%)가 경제조사기관을 통과했다.

지방자치체 중에서는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아니와, 돌린스크, 쿠릴스크, 노글리키, 티몹스코예, 유즈노쿠릴스크 구역에서 경제 조사가 사실상 완료되었다.

코르사코브 구역 사업가들도 적극 호응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모든 사업체가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중소기업 보고서 수집은 계속된다. 아직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기업은 5월 말까지 사할린통계국에 MP-SP양식 및 '1-기업가' 양식으로 보낼 수 있다.

**(사할린주 통계국)**

### 이 모 저 모

#### 사할린 주민, 24시간 크로스핏 머피 운동 12라운드 성취

에두아르트 쉬폴린(26세)은 주 다종경기연맹 회장이자 운동선수로서 24시간 동안 종합 크로스핏 머피 운동을 성취했다. 이 운동은 가장 고된 스포츠 종목 중 하나다. 1 라운드가 1.6km 달리기, 턱걸이 100개, 팔굽혀 펴기 200개, 스쿼트(무릎 굽혀 앉았다 일어나기)300개, 두 번째 1.6km달리기가 포함돼 있다.

에두아르트 쉬폴린은 24시간 내 17라운드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 미국의 타일러 프리스(17세)가 24시간 동안 16.75라운드의 크로스핏 머피를 성취해 기네스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에두아르드가 17 라운드를 성취할 경우 세계 기록을 깨게 된다. 그 전에 리 데이비스가 24시간 동안 16 라운드를 성취했다. 이 운동의 필수 조건으로 남자는 9kg 무게의 조끼를 착용, 여자는 6kg을 착용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

에두아르트 쉬폴린은 오래 전부터 세계 기록을 깨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밝혔다. 자신의 몸무게 103kg에 9kg의 조끼를 입고 종합운동세트를 성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오랫동안 체력을 단련시켜왔다. 에두아르드는 기네스북 도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 15일 18시부터 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24시간 동안 모든 운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했다.

"세계 기록은 두 가지 규정이 있다. 첫째는 24시간을 버티는 것이다. 왜냐면 세상에서 이러한 운동들을 하는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17 라운드를 성취해내는 것이다. 나는 첫째 조건을 성취했으므로 어떤 경우에서든 이는 성공적인 시도였다. 17 라운드의 도전은 실질적으로 이를 수 있었는데 종목 수행 중 어떻게 체력을 보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경험이 부족했다. 12시간 후 절반의 시간이 지나 에너지가 부족해 다음 라운드를 좋은 속도로 수행할 수 없었다. 그 결과 24시간 동안 12라운드를 성취할 수 있었다."고 에두아르드는 말했다.

#### Сахалинец ровно сутки отжимался, подтягивался, приседал и бегал

26-летн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спортсмен, президент областной федерации 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многоборья Эдуард Шипулин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выполнял кросс-фит-комплекс "Мёрф". Он счита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тяжелых спортивных испытаний. Один раунд включа-

ет в себя забег на 1600 метров, 100 подтягиваний, 200 отжиманий, 300 приседаний и второй забег на 1600 метров. Эдуард Шипулин поставил цель выполнить за сутки 17 таких раундов. В этом случае он побил бы мировой рекорд, которы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новил 17-летний американец Тайлер Фриз, выполнивший 16,75 комплексного упражнения "Мёрф" за 24 часа. Предыдущее достижение принадлежало Ли Дэвису, который за сутки повторил комплекс ровно 16 раз. Обязательное условие — все упражнения выполняются в жилете-утяжелителе весом 9 кг для мужчин и 6 кг для женщин.

Сахалинец рассказывает, что идея побить мировой рекорд родилась у него давно. Он долго готовился к испытанию себя на прочность, понимая, что с собственным весом 103 килограмма и в жилете весом 9 кг выполнить задачу будет непросто. Эдуард подал заявку в Книгу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и 15 мая в 18 часов приступил к упражнениям.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все снималось на видеорегистратор.

— Рекорд состоял из двух критериев. Первый — продержаться 24 часа, потому что таких у нас в мире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И второй — постараться сделать 17 раундов. Я выполнил первую вариацию рекорда, поэтому в любом случае это успешная попытка. По поводу 17 раундов — все реально, просто не было опыта, связанного с пониманием, как питаться между подходами. Я немного не подраассчитал в этом плане, и к половине времени, после 12 часов, энергия просто не позволяла мне ускориться, из-за этого в итоге я выполнил 12 раундов, — рассказал спортсмен.

#### '브라보' 돌린스크의 무용팀이 '기분의 발산'을 관객들에게 선사

5월 15일(토)에 돌린스크의 영화관 '러시아'에서 <기분의 발산 - 춤>이라는 주제로 '브라보' 사할린주 가무예술단의 공연 발표회가 있었다.

이 콘서트는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브라보'예술단에서 청소년 무용인들이 강습을 받는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부모님과 예술단 팬들 앞에서 공연 발표회를 펼친다.

지금의 이 공연은 다시금 찬란한 행사가 되었다. 바로 공연 후에 빈자리가 없다는 것이 이를 확증하고 있다. 공연의 기존 전통에 따라 '브라보'의 대표적인 러시아 '호로보드(군무)'로 막을 열었다. '브라보' 예술단은 2008년 돌린스크 아동 예술회관에서 조직되었다. 예술단 설립자이자 정신적 영감을 주는 지도자로서 장 왈렌티나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는 단체의 교육 강습과정에서 드러난다고 동료들은 말한다.

'브라보'는 하나의 큰 예술단으로서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무용단은 초급에서 상급까지 5개 그룹으로 나뉘

어져 있다.

공연 발표회에는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서 학교 졸업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혀 새로운 무용 곡목이 발표되었는데 '전쟁시절의 아이들', '백학', '꽃잎들', '발라라이카', '점, 점, 얼룩점', '코반노 콜레소(잘 구르는 바퀴)' 등. 또한 인기 있고, 전에 발표되었던 춤 '부랑아', '불가강에서 에니세이강까지'를 발표해 '브라보' 예술단은 총 15개의 무용 곡목을 선보였다.

왈렌티나 미하일로브나는 단장은 "우리 가무 예술단은 전혀 특별하지 않다. 우리 '브라보' 예술단에는 진짜 춤을 추고 싶어하고, 무대에 서며, 창작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예술단 지도자로서 나의 과제는 바로 이런 점에서 그들을 돕는 것이다. 우리는 명성을 얻거나 상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분을 선사하고 그들과 따뜻한 마음과 재능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일한다."고 말했다.

#### Долинское "Браво" подарило зрителям "Цвет настроения"

В субботу, 15 мая, в кино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Россия" в Долинске прошел отчетный концерт образцового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раво" под названием "Цвет настроения — танцы". Такие концерты проходят ежегодно 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отчет перед родителями и поклонниками коллектива, которые могут увидеть и оценить, чему научились юные танцоры за время занятий в "Браво". Нынешний концерт в этот вечер вновь стал ярким событием. Подтверждение тому — отсутствие свободных мест в зале.

По сложившейся традиции концерт открыл русский "Хоровод" — визитная карточка "Браво".

Коллектив "Браво" образовался в 2008 году на базе долинского дома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Основателем, идейным вдохновителе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является Валентина Чан, обладающая, по словам коллег, незаурядны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которые выражаются и в организации учебно-воспита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Браво" — один большой коллектив, в нем занимаются 50 человек. На сегодня он разделен на пять групп — от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й до старшей.

В отчетном концерт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разновозрастные танцоры: от самых маленьких и до выпускников. Публик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совершенно новые танцевальные номера: "Дети войны", "Журавли", "Полевые цветы", "Балалайка", "Точка, точка, запятая", "Ковано колесо". И полюбившиеся, ранее поставленные танцы, — "Беспризорники", "От Волги до Енисея". Всего в отчетном концерте коллектив "Браво" выступил с 15 номерами.

**(8면에 계속)**

### 사할린동포 국적 관련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45.8.15.까지 출생) 및 그의 자녀(사할린동포 2세)까지 국적판정대상자로 확대하고, 국적판정자의 배우자는 간이귀화로 포섭

※ 동반가족 중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사할린동포 3세, 4세 등)의 경우, 별도 국적법상 요건 충족을 통해 국적 취득 가능(국적판정대상자 미포함)

○ 사할린동포 2세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모국과의 연대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할린동포(1세)와 그의 자녀(2세)까지 국적판정대상자로 확대하고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

- 가족결합 등을 고려하여 국적판정 신청자의 배우자 간이귀화 신청 前 체류자격 부여(F-1), 배우자 사망·혼인관계 단절 없이 간이귀화(국적법제6조제2항제1호·제2호)\*로 국적취득 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복수 국적 유지 가능

\* 혼인 및 국내 거주 2년 또는 혼인 후 3년 및 국내 거주 1년

#### [국적부여 방법 및 복수국적 인정 여부]

[현행]			[개선안]		
대상	국적부여	복수국적	대상	국적부여	복수국적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1세	· 국적판정	· 유지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사할린동포 1세>	· 국적판정	· 유지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2세	· 국적회복 · 특별귀화 · 간이귀화	· 신청 방법별 상이	· 그의 자녀 <사할린동포 2세>	· 국적판정 · (65세 이상) 국적회복	· 유지
·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간이귀화	· 유지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1세 또는 2세의 배우자	· 간이귀화	· 유지 (요건 충족시)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등에 대한 국적판정지침 제정(내부지침)  
- 신청대상 및 신청장소 확대, 판정절차 및 신청서류의 구체화, 판정심사 및 후속조치 체계화, 국적판정신청자의 배우자 체류허가 신설 등

○ 특정 제외공관(러시아 및 CIS 국가)에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국적판정 신청 허용  
- 국적법령상 국내에서만 신청가능한 국적판정신청을 사할린동포법 제정 취지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특정 제외공관에서 신청가능하도록 관계부처 협의 추진 예정

※ 법무부와 외교부 간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전산시스템 연계 예정('21. 상반기)

#### [사할린동포 국적취득 제도 및 복수국적 인정 여부]

[기존]			[개선안]		
대상	국적 부여 방법	복수국적	대상	국적 부여 방법	복수국적
· 사할린 동포 1세	· 국적판정	· 유지	· 사할린 동포 1세	· 국적판정	· 유지
· 사할린 동포 2세	· 국적회복 · 특별귀화 · 간이귀화 · 일반귀화	· 신청 방법 별로 상이	· 사할린 동포 2세	· 국적판정 · 국적회복 · 특별귀화 (독립유공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유지 · 65세 이상 · 유지
· 배우자	· 간이귀화	· 유지 (요건해당시)	· 사할린 동포 3세	· 특별귀화 · 국적회복 · 간이귀화 · 일반귀화	· 유지
			· 국적판정자의 배우자	· 간이귀화	· 유지 (요건해당시)

#### [개정된 사할린동포 국적취득 방식 주요 내용]

- 사할린동포 1세(1945/8/15이전 출생 및 이주)는 국적판정, 판정 시 복수국적 유지
- 사할린동포 2세는 ① 국적판정(사할린동포 1세가 생존하고 영주귀국하려는 사할린동포 2세가 사할린동포 1세와 혈통, 가족관계, 출생 등이 확인되는 사람)  
\*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하였더라도 사할린동포 1세와의 혈연, 출생,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국적판정신청 가능  
② 국적회복(사할린동포 1세가 생존하고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이후 러시아 국적을 스스로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사람) \* 65세이상 복수국적 유지  
③ 특별귀화(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종합평가 면제, 만60세 이상의 경우 면접심사 면제, 1/2 단축심사
- 사할린동포 3세는 ① 특별귀화(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2세의 자녀)  
② 국적회복(사할린동포 3세 중 2세가 생존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어 출생 신고가 가능한 사람)  
\* 출생신고 시 연령에 따라 병역의무, 국적선택의무 발생할 수 있음  
③ 간이귀화(국적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할린동포 2세의 자녀/사할린동포 2세가 국적판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호적이 있는 경우)  
④ 일반귀화(부 또는 모와 관계없이 재외동포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영주자격으로 변경, 성년, 5년이상 거주, 생계유지능력, 품행단정, 기본소양 등을 갖춘 사람)
- 국적판정자(사할린동포 1세 및 2세)의 배우자는 간이귀화, ① 혼인관계 유지(혼인한 상태+2년거주, 혼인한 후 3년 경과+혼인한 상태+1년 거주)시 복수국적 유지, ② 사망, 이혼 등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복수국적 유지 불가

### 재미있는 한국 문화의 향기

1. 개설 목적
  - 1) 한국어고급 과정을 대체하는 강좌의 필요성
  - 2) 한국 방문(귀국) 희망자의 한국문화 적응력 향상
2. 장소 : 사할린한국교육원 C교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 1층)
3. 기간 : 2021년6월2일 ~7월 21일 매주 수요일 18:00 ~ 19:30
4. 수강 인원 : 10~20명
5. 신청 대상
  - 1) 사할린 한인 중 한국어 듣기, 쓰기 가능하신 분
  - 2) 교육원의 '한국어 중급1, 2' 과정을 마친 분들
  - 3)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인 분
6. 강사 : 허남훈 강사님 (전 토마리학교 한국어 교사)  
\* 이 수업은 2021년 9월 학기에, 이병일 원장의 강의로 계속 진행될 예정임
7. 내용
  - 1주 ~ 8주 간 한국문화(한국역사, 한국의 노래, 한국의 시, 글쓰기, 한국에서의 생활 경험 등)의 전반에 관한 주제
8. 신청 방법 : 신청 순서대로 접수 마감
  - 1) 전화(50-56-96)로 접수 가능한지 확인 후 교육원 방문, 신청서 제출
  - 2) 2021.5.28(금) 17:00까지 신청 마감

사할린한국교육원

### 사할린 납흐족의 어획 금지로 국가 배상 2,800만 루블리 판결

'난보' 납흐족 공동체가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2천8백30만 8,204루블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사할린 북부 소수민족 원주민 대표들이 사할린 중재재판소에 연방 수산청과 연방 재무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이유는 해당 기관들이 2019년 어업 참가 허용 협약에 납흐족 공동체를 배제한 데 있다. 재판 과정에서 '난보'공동체는 이런 결정이 불법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발효된 결정에 대한 소송을 사할린 중재재판소가 받아들인 가운데 판결문에는 '원고가 2020년 어업 성어기에 참가할 수 없어 자신의 공동체의 생활보장 수단을 목적으로 하는 어업 활동을 실행하지 못했다. 이들 공동체의 유일한 수입원은 어업이다. 원고 측은 2020년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어획 기간에 해양 생물 채취의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밝혔다.

'난보'납흐족 공동체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2019년의 지표를 토대로 산출됐

다. 러시아 수산청과 그의 사할린 지부는 손실에 대한 청구 금액에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 측은 2020년에 납흐족은 어획이 적어 수익도 적었을 거라 주장하며 국가기관의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어획량이 감소한 다른 어업 종사자들과 비교하며 전국 어업 경제 연구소의 조사 자료를 제시했다.

재판 판결은 "이런 상황임에도 원고 측이 그들의 수역에서 2019년보다 많은 연어와 송어를 어획할 수 없었을 거란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어획량은 여러 요인과 어업 종사자의 개별적 조직성, 경험, 지식에 따라 달라지며 어획 수역에 따라 다르다."고 피고 측을 반박했다.

사할린 중재재판소는 국가기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난보'납흐족 공동체에 러시아 연방 국가자금에서 2천8백30만 8,204루블리를 난보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사할린, 학생 체육대회 결산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사할린주 중등학교 우수팀들은 <대통령배 체육대회> 전국 학생 체육대회 지역 예선에 참가했다. 이들은 농구, 배구, 탁구와 육상 경기에서 승부를 겨루었다. 결과는 5월18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 '위스톡' 훈련 강습센터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발표되었다.

종합 1위는 유즈노사할린스크 6호 학교가 차지하여 이 학교의 팀이 사할린을 대표해 크라스노다르 변경의 전국 아동센터 '스메나'에서 열리는 <대통령배 학생 체육대회> 전국 본선에 진출한다. 2위는 스미르니호브 학교가 차지, 3위는 돌린스크의 1호 학교가 차지했다.

### 사할린 국경 수비대, 외국인 불법 이민 통로 적발

사할린주의 러시아 연방 보안청 국경 관리국이 두 개의 불법 이민 통로를 차단했다.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 불법 체류 조직에 대해 국경 관리국 조사기관이 러시아 연방 '불법 이민 조직' 형법 제 322.1조1항에 근거해 2건의 형사사건을 제기했다. 형사사건의 주범자들에게서 도장, 서류 양식, 노동계약과 민사계약에 대한 위조를 확증하는 서류들, 이주 등록 조직이 발견됐다.

코르사코브 구역 주민의 경우 제공된 회사의 이름으로 외국인과 가짜 노동계약을 맺고, 체류하는 장소에서 체류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담아 외국인 체류 등록을 작성했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범법자는 외국인에게 체류할 의사가 없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체류지에 대한 정보를 외국인 체류 서류에 기입한 사건이다.

예비조사기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범법자들은 외국인 290명에게 러시아 지역에 불법 체류를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고 전해졌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парат для лечения COVID-19 уменьшает число тяжёлых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я

Анализ результатов лечения 3 тысяч пациентов с подтверждённой инфекцией COVID-19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месяца подтвердил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епарата Regkirona (СТ-Р59)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Он создан на основе моноклональных антител, которые, проникая в белок коронавируса, уменьшают его способность проникать в клетки организма. Препарат, разработанный био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компанией Celltrion, вводился на начальной стадии заболевания 450 пациентам из группы повышенного риска, то есть,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0 лет,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сердца, сосудов, органов дыхания и диабетом. Только у одного из них заболевание протекало в тяжёлой форме, летальных исходов не было. При протекании заболевания в лёгкой форме препарат быстро ликвидирует внешние симптомы. Regkirona эффективен против английского, нигерийского и нью-йоркского вариантов вируса COVID-19.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именение препарата является условным. Для его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одобр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в ходе третьей фазы клинических испытаний.

## Найдена альтернатива повышению зарплат

Федерация предприятий Кореи (KEF) призвала крупные конгломераты страны заморозить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и вместо этого трудоустроить больше персонала.

Федерация направила послания 4 300 ее членам, попросив их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повышение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этом году, за счет чего организо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и оказать поддержку малым и средни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Учитывая эконом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с обострением молодежной безработицы и расширением разрыва между крупным и малым бизнесом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необходимо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и работать над снижением разрыва», говорится в обращении.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федерации, соотношение средней месяч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компаниях с численностью работающих свыше 500 и малыми фирмами с персоналом от 5 до 10 человек составляло от 199,1 до 100 в 2019 году. За рубежом разница значительно ниже, где в Японии она составляет 129,6, в США 154,2 и во Франции 157,7.

Комите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профсоюзов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скоре проведет заседание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на будущий год и его решение ожидается к июлю.

ИА РУСКОР

## K-FEST 2021 откроет россиянам тайны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2021 год объявлен Годом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В рамках этого события начал свою работу масштабный фестиваль K-FEST 2021, который призван познакомить россиян с культуро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ассказать о стране и ее жителях.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естиваля являются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осковск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туризма Коре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1 год является Годом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 говорит второ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Чжон Бэ. – Желаю, чтобы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нес вклад в тесный и значимый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между наш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Русская пословица гласит: "Дерево держится корнями, а человек - друзьями". Крепкая дружба, установленная через двусторонний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сможет стать для нас надежной опорой".

Статс-секретарь -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лла Манилова в своем приветствии к проведению фестивал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K-FEST 2021" отметила следующее: "Ежег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K-FEST", представляющий российский публике все многообраз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уже стал традиционным. Фестиваль,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текущем году, приурочен к Году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и имее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т имен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хотелось бы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Министерству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ольств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 также Культурному центру Посольства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Видное место в программе Года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занимает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K-FEST 2021, – отметил спе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культур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ихаил Швыдкой. – В ходе фестиваля жители России смогут лучш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 запланированы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онцерты, выставки, циклы лекций и творческие конкурсы, как в очной форме, так 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традно, что география K-FEST 2021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столицей, а охватывает также и другие города России. С удовлетворением хотел бы отметить наличие интерактивов, которые дадут шанс имеющим интерес к Корее россиянам принять боле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фестиваля".

K-FEST 2021 пройд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онлайн и в офлайн режимах. И не только в Москве, но и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Астрахани и Ростове-на-Дону.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ится множество событий по 20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концерты классической и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и, вечер современного танца Open Look, онлайн и офлайн выставки, в том числе выставка корейского дизайна, онлайн лек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узея Кореи и музея Царицыно. Будут показаны фильмы, сериалы, комиксы, спектак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конкурсы, викторины, танцевальный TikTok челлендж и еще десятки интереснейши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том числе фестиваль уличной корейской еды K-Food.

В Сеуле - столиц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заведений общепита самой раз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и почти три десятка ресторанов, отмеченных звездой Мишлена.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обилие самых разных заведений, корейцы любят перекусить по-простому, на ходу. Но речь не идет о гамбургерах и картошке фри. Уличная еда в Корее - это целое направление, которое заслуживает отдельного внимания.

Как в любой азиатской стране, в Корее любят рис и могут приготовить из него буквально все, что угодно. Взять хотя бы топпокки - рисовые палочки с нейтральным вкусом. Уличные торговцы знают тысячу и один рецепт закусок на основе топпокки. Их нанизывают на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шпажки и обмакивают в самые разные соусы – получается вкусно и питательно, а главное – разнообразно. Еще одно популярное блюдо для быстрого перекуса – кимпаб. Это ролл на корейский манер. Туда можно добавить говядину, тунец, сыр, овощи и другие ингредиенты. Если захочется сладкого, значит пришло время съесть хотток (не путать с хот-догом!). Это блинчик с начинкой из тростникового сахара и корицы или орехов с медом или даже из красных бобов. Видео с простыми рецептами корейского стрит-фуда будут выгружаться на официальный Youtube-канал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начиная с 13 мая.

В Астрахани в формате офлайн также пройдут обучающ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орейских блюд. С 1 по 28 июня в Instagram пройдет фотоконкурс "Вкусная Корея – уличная еда".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могут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кулинарными шедеврами, а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ат ценные призы.

Фестиваль K-FEST 2021 – это, конечно, не только про еду, но и еще и про пищу духовную. 11 мая в Москов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нсерватории имени П.И. Чайковского состоялся концерт "Шедевры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Кореи и России". Оркест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академической симфонической капеллы России и солисты из двух стран исполни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признанные мировыми шедеврами. Дирижер оркестра Дмитрий Крюков – один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дирижеров нашей страны. За фортепиано Алексей Мельников - российский восходящая звезда, победитель различ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конкурсов, в том числе Манхэтте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в Нью-Йорке,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на сцене знаменитого Карнеги-холла.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K-FEST 2021 будет показан также музыкальный спектакль "Симчхонга" в исполнении коллектива "The Sero" – 17 мая в Москве, 21 мая в Астрахани и 24 мая в Ростове-на-Дону. Это представление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корейском музыкальном жанре – пхансори, которое в 2003 году было признано ЮНЕСК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культурным наследием. Пхансори часто называют корейской оперой. Этот жанр по праву можно назвать визитной карточ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зык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известен у себя на родине новаторским подходом к классике, потому спектакль прозвучит в современной интерпретации.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конечно же, дело не обойдется без современ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K-Pop, которое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молодежи по всему миру. Стартовал K-Pop онлайн конкурс Let's dance. Лучшие танцоры, принявшие в нем участие, смогут выиграть призы, в том числе смартфоны известных брендов и даже авиабилеты в Корею. Недавно было также объявлено о запуске нового танцевального челленджа в TikTok под названием "На волне K-FEST 2021".

С 2 по 30 июня в Москв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музее декоративного искусства пройдет выставка минхва "Красот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Минхва – жанр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живописи, родившийся более 300 лет назад. На выставк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20 работ художников лаборатории минхва университета Кемён.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смогут даже самые занятые жители столицы. Если нет времени сходить на выставку или концерт, то достаточно будет спуститься в московскую подземку. Для знакомства с корейскими культурными символами в Московском метро с 16 мая по 15 июня запущена специальная рекламная кампания. В вагонах можно увидеть видеоролики и плакаты, посвященные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е хансик, историческим зданиям, национальному костюму ханбок, туризму, системе письменности хангыль и другим "визитным карточкам" страны. Дизайн одиннадцати плакатов посвящен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а в четырех отображена идея диалога культур Кореи и России. А если отсканировать специальный QR-код на плакатах, то можно узнать еще больше 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из специально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статей. Такая же акция будет запущена и в метр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 1 по 30 июня.

Более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ограмме можно найти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Евгения Мамонова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езидент РК обещает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вакцин от COVID-19 в ходе визита в США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одтвердил решимость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ША в поставках вакцин против COVID-19 в ходе предстоящего визита в Вашингтон. Выступая 17 мая на еженедельной встрече со своими старшими советник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бещал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ереговорам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жо Байденом как возможностью не только укреп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поставке вакцин, но и продвигаться к цели превратить РК в глобальный центр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акцин. В ходе саммита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вопросы обмена вакцинами или передачи технологий для их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РК. Коснувшись ситуации в экономике, Мун Чжэ Ин вновь отметил, что она переживает «сильный подъем». Он подтверд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ложит все усилия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роста валового внутреннего продукта не менее чем на 4% в 2022 году.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ажно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помог сделать жизнь людей лучше. Основным приоритетом является создание рабочих мест, поскольку это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о со средствами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людей, - подчеркнул Мун Чжэ Ин.

## С 25 мая российские авиакомпании увеличат число регулярных рейсов в РК

С 25 мая российские авиакомпании увеличат число регулярных рейсов в Р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15 мая агентство ТАСС со ссылкой на Российский оперативный штаб по борьбе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COVID-19. Рейсы между Владивостоком и Сеулом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ся 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а между Сеулом и Хабаровском, Сеулом и Иркутском, Сеулом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 один раз в неделю. В мар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оссия запретила регуляр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олёты с целью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а с августа начала постепенно снимать запрет.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омпания Аэрофлот выполняет по одному рейсу в неделю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Сеулом, Владивостоком и Сеулом. Один рейс в неделю между Сеулом и Москвой выполняет компания Kogean Air.

## Сеул разочарован отказом Пхеньяна от участия в отборе на ЧМ-2022

17 ма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выразило разочарование окончательным решением Севера прекратить участие в азиатском отборочном турнире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2022 г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позиции, что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и друг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гры являются возможностью для межкорейского обмена в спорте»,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В нём отмечается также, что Сеул продолжит усилия по поиску друг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рогресса в межкорей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16 мая Азиатская футбольная конфедерация подтвердила отка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т участия в азиатских отборочных матчах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2022 года,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пройти в июне в РК. Футбольная ассоциация КНДР в качестве причины отказа назвала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футболисты отказались по той же причине участвовать в квалификацион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чемпионата Азии 2023 год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Китае.

##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поручил создать стимулы для поощрения вакцинаци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им Бу Гём поручил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создать систему стимулов для поощрения вакцинации от COVID-19. Выступая 16 мая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борьбе со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чрезвычайными ситуациями и катастрофами, он поручил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ведомствам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усилия по подготовке двусторонних соглашений с крупными странами о взаимном освобождении 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от обязательного карантина. Кроме того, гла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извал население страны доверять правительству и делать прививки.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89,5% 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старше 65 лет не заразились вирусом, а у 100% заразившихся той же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удалось предотвратить смерть в результате обострения хрон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Побочные реакции после вакцинации проявились в виде лихорадки и мышечных болей.

## В Сеуле могут ввести запрет на употребление алкоголя в парке Ханган

Власти Сеула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введения запрета на распитие алкогольных напитк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оличного парка Ханган, привлекающег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отдыхающих. Погода становится теплее, и в парке всё чаще можно увидеть компании выпивающих.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были внесены поправки, налагающие штраф за распитие спиртных напитков в местах, где это запрещено. Размер штрафа составляет до 100 тыс. вон (88 долларов). Администрация Сеула планирует к концу июня определить детали подобного запрета в парках. (RKI)

## О военном перевороте в Корее 16 мая 1961 г.

Андрей Ланьков

Рано утром 16 мая 1961 года часовые, охранявшие один из не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тогда мостов через реку Ханган, были разбужены шумом подъезжающих автомобилей и тяжелым стуком солдатских сапог.

Если верить легенде, которая так и не была, кажется, подтверждена официально, но которая, надо признать, очень похожа на правду, проснувшиеся часовые моментально сориентировались в ситуации и закричали: «Да здравствует великий вождь товарищ Ким Ир Сен! Да здравствует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ая армия!» Они решили, что началась вторая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и в Сеул вступают части Севера.

Конечно, эта история не очень хорошо говорит о мор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ом состоя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в 1961 году. В Сеул вступали, конечно, н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части, а части, верные группе молодых офицеров, решившихся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реворот.

Собственно говоря, с этого переворота (его вообще-то сами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зывал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оенной революцией») началась современная история Южной Коре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именно тогда, собственно, Южная Корея и родилась.

На переворот 16 мая тогда мало кто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 в те времена в Азии и Африке похожие перевороты происходили чуть ли не ежемесячно. Мало кто возлагал сколь либо серьёзные надежды на группу молодых полковников и генерал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всё большую роль стал играть Пак Чонхи – человек, с которым переворот 16 мая 1961 года и ассоциируется.

Родившийся в бедной, даже по меркам колониальной Кореи, крестьянской семье, он сначала получил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а потом пошёл служить в японскую армию – шаг, о котором до сих пор не забывают его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ротивники, и по поводу которого его не мене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сторонники и почитатели всегда испытывают некоторую неловкость.

Посл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молодой офицер одно время симпатизировал коммунистам и при другом повороте событий вполне мог бы стать генералом в армии Севера, а не в армии Юга.

Однако карта легла иначе, и к концу 1940-х Пак Чонхи, разочаровавшись в коммунизме, стал одним из самых харизматичных и популяр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андиров. Славился он своим скромным стилем жизни и неподкупностью – редкими качествами для тогдашне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воен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Как и многие военные в Южной Корее того времени (впрочем, не только того времени, и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й Корее) Пак Чонхи с презрением и подозрением относился к гражданским политикам, которых он считал болтунами и ворам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апреле 1960 года было свергну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Ли Сынмана, которое ни Пак Чонхи, ни его друзья особо не жаловали, они обнаружили, что ситуация в стране начинает выходить из-под контроля.

Выражаясь несколько вольно, в период с апреля 1960 до мая 1961 года Корея переживала ту ситуацию, которая многим жителям России памятна по 90-м годам.



В итоге Пак Чонхи и его окружение (повторимся: в тот момент Пак Чонхи не был еще безусловным лидером, осмелившимся на переворот военных) решили со всем этим безобразием покончить и установить в стране твёрдый порядок.

От многих других организаторов бесчисленных переворотов, сотрясавших в 60-е годы весь афро-азиатский регион, лидер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утча отличались целым рядом весьма специфических черт. В частности, они чётко понимали, что главная их задача – это обеспечи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страны. Назвать их абсолютно бескорыстными было бы неправильно. Но по меркам той эпохи и той среды, эти люд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 слишком много и не слишком часто клали себе в карман. Их задача

была проста – вытащить страну из нищеты.

Они верили, что сделать это можно, используя методы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ой и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и, но при этом давать полную волю рынку они не хотели. Та модель, которая появилась в Южной Корее в результате их усилий известна экономистам как «дирижистская модель» – о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что экономика в целом остаётся рыночной, но государство не испытывает особого стеснения, когда по его мнению в экономику надо вмешаться.

Впрочем,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произошло в Корее в 60-70 годы, пожалуй, не имеет особого смысла – об этом написаны сотни, если не тысячи, томов.

Название этого периода – «Эпох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чуда» – говорит само за себя. Но надо понимать и то, что у этого «чуда» была и обратная сторона: 12-14-часовой рабочий день в швейных мастерских Тондэмуна, таинственное исчезновение оппозиционных лидеров, жёсткая цензура, которая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только ужесточалась. В общем, для одних людей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и Пак Чонхи 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ереворота 1961 года – это кровавые палачи, которые раздавили только начинавшийся распускаться цветок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емократии, для других эти же люди – спасители страны, которые остановили надвигающийся хаос, превратили Корею в самую быстроразвивающуюся экономику мира и создали условия, при которых Южная Корея стала одной из нескольких развивающихся стран, которым удалось в итоге стать странами развитыми.

По своему правы и те, и другие, но можно быть уверенными, что споры о том, что для Кореи значимые события 16 мая 1961 года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ся еще много поколений. Причём (как оно всегда и бывает), и нынешние, и будущие участники этих споров будут во многом руководствоваться не столько желанием понять прошлое, сколько желанием опрокинуть в прошлое свои собственные надежды и страхи.

Если же мы все-таки хотим заниматься объективной историей (которая, что бы ни говорили поклонники модных французских философов, существует), то нам остается тольк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вечной формуло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Однако в одном нет сомнения: именно 16 мая 1961 года родилась та Южная Корея, которую мы знаем.

\*\*\*

Источник: Журнал КИМ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граждает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из Корсакова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главы региона в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чествовали обладателей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 Ваш район богат талантами, активными, неравнодушными жителями. В Корсакове шесть победителей и четыре лауреата масштабн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Спасибо за то, что делает жизнь в родном регионе интереснее, комфортнее, лучш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беду в номинации «Грани мастерства» и звание лучшего работника дома культуры завоевала Оксана Федорова. Под ее руководством детский театр кукол «Теремок» стал образцовым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коллективом, а спектакли постоянно собирают аншлаги.

«Спортсменом года» признали воспитанника корсаковской спортшколы Максима Ли. Обладатель первого разряда по тхэквондо одерживал победы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На счету Максима золото и серебро Кубка Балтийского моря, серебро Кубка Приморья.

Трое жителей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стали лауреатами премии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В подноминации «Выдающийся родитель» отметили Александру Федосенко – счастливую маму четверых детей. Лауреат в подноминации «Гражданская позиция» – пожарный-спасатель Артем Блинов, а в подноминации «Активное долголетие» – Галина Ковалева. На пенсии она ведет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занимается спортом и выигрывает в областных и район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областном конкурсе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наградами отметили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но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и учреждения. В номинации «Домашний очаг» лауреатом стал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самоуправление «Советская, 58». По инициативе корсаковцев во дворе проводи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субботники, праздники двора.

Среди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победу одержало объединение «От сердца к сердцу»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Натальи Новопашиной. Добровольцы заботятся о сиротах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в развитии, помогают детям, оказавшим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 номинации «Образование будущего»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 корсаковский детский сад №3 «Ромашка». В дошко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работают четыре логопедических группы. Для развития речи детей создана специальная инновационная площадка. Педагоги «Ромашки»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осуществили пять грантовых проектов на общую сумму более 4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орсаковскую детскую школу искусств признали лучшей в номинации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Здесь актерское мастерство, музыкальное и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е искусство познают около 400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В номинации «Наш двор» победу одержала старейшая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Корсакова – ООО «Сакура плюс». Под ее управлением находятся 74 дома в портовом городе. Создан телеграм-канал, где оперативно даются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жильцов.

Напомним,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голосования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59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и 119 лауреатов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Из-за пандемии масштабную церемонию награждения провести не удалось – итоги подвели на праздничном онлайн-концерте. В этом году победителей чествуют во время визитов в районы губернатора 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ный сквер Пограничник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оют 28 мая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получило тематическую детскую площадку, спортивную зону,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ешеходные участки, просторную беседку, лавочки, урны, новые деревья, арт-объекты и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Кроме того, там установили современную систему освещения и зимнюю иллюминацию. Финальные работы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28 мая наша страна будет отмечать День пограничника. Очень символично, что в эту дату мы откроем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обновленный тематический сквер. Он сделан со всем уважением к защитникам наших рубежей. Я уверен, этот сквер будет пользоваться огромн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среди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ердце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является памятник воинам-пограничникам, установленный здесь в 1988 году. В рамках реконструкции для него сделали гранитный постамент.

Теперь в сквере можно не только отдохнуть, но и узнать о протяженности российских границ, изучить политическую карту. Важной композиционной частью объекта стали 18 столбиков – на каждом изображены флаги государств, с которыми граничит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На тематической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е юные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играть в шпионов и пограничников. Для них здесь установили скалодром, канатную дорожку, горку и качели.

Отметим, реконструкцию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начали в середи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плану её должны были завершить только этой осенью. Однако подрядчик сработал с опережением графика. Общая площадь обновл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 почти 13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реконструкции сквера стал лиде-

ром рейтингов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по программе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2019 году. Сейчас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ыбирают новые объекты, которые, по их мнению, необходимо благоустрои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роголосовать можно на портале <https://65.gorodsreda.ru>,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вшись через подтвержденную запись в Госуслугах или по номеру телефона, а также на самом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усилили меры по защите уникальных природных объектов Кунашира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острове введена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мер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памятников природ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Территориям, которы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к ним прилегают, присвоили статус охранных зон.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бщая площадь участков, защищенных от промышл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человека, увеличилась на 2 тысячи гектаров.

Специальный режим установлен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Кунашира, прилегающих к «Вулкану Менделеева», а также к «Лагуноозерному реликтовому лесу» и «Кунаширскому кустарниковому реликтовому лесу». В охранных зонах запрещено заготавливать древесину и добывать полезные ископаемые.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находится состояние водоемов и рек.

В границах нерестоохраненных полос нельзя возводить и эксплуатировать объекты капиталь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здавать ле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и лесные плантации. В то же время охранный режим допускает рубки поврежденных и погибших деревьев, рубки ухода в искусственных лесных насаждениях.

Отметим, самая крупная охранный зона установлена на «Вулкане Менделеева» – более 1,9 гектара. Памятник природы создали в 1983 году для охраны древнего вулкана, горячих источников вокруг него, уникальных сольфатарных полей с выходами серы, а также редких видов животных и растений.

Памятники природы «Лагуноозерный реликтовый лес» и «Кунаширский кустарниковый реликтовый лес» были созданы в 1980 году. Здесь созданы охранные зоны площадью 44 и 47 гектаро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Это участки в центре Кунашира – места произрастания реликтовых видов растений, занесенных в Красную книг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Более 100 заявок поступило на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форуме «Острова»

Молодежный слет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с 13 по 19 августа и соберет сот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 молодых людей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Анивчанин Александр Ким – один из тех, кто уже подал заявку.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развивает корейскую борьбу ссирым в регионе и приобщает молодежь к культуре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 Хочу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треке «Креативные индустрии». Заинтересовало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потому что я также занимаюсь хореографией, увлекаюсь фото- и видеосъемкой. Очень хочу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 опытом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овыми людьми. Это будет полезно для моей работы в молоде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поделился Александр Ким.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также прислали жители Брянской, Белгородской, Волгоградской, Кемеровской, Костромской областей, Красноярского, Алтайского краев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 Большая часть участников – это сахалинцы. Все волонтеры также будут из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Для нас – это важный и принципиальный момен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лодежь умеет создавать интересные и необычные проекты. Мы хотим, чтобы ребята приобрели опыт молодеж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Приглашаем экспертов,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доработать или создать новые идеи. Также прорабатываем механиз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федеральными спикерами, которые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форума будут сопровождать авторов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Они помогут ребятам в реализации идей, оформлении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нта и других моментах,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Сماعيلов.

Регистрация продлится до 13 июня на сайте: <https://ostrova2021.ru>. На форум приглашаются россияне от 18 до 35 лет – студенты вузов и колледжей, молодые специалисты, которые хотят менять регион к лучшему и реализовыват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ловые и общественно-значимые проекты.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с молодежью встретятся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Эксперты ответят на вопросы, как выстроить эффективное общение с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нта, «вырастить» свой проект и получить экспертную поддержку.

Площадками проведения форума стану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рсаков и Смирных. Помимо занятий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предусмотрена экскурсионная и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ы – поездки по острову, познавательные прогулки, вечер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берегу моря, тематические фестивали, выставк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орума выступаю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ерейдет на отдельный сбор мусора в начале июля

О том, как решается эта задача,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доложили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На мусорных площадках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установя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емкости для сбора отходов – пластика, стекла и алюминиевых банок. Всего – 400 контейнеров.

– Мы боремся за чистые острова. В сжатые сроки ликвидировали тысячи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х свалок. Теперь нам нужно перейти к цивилизованному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А это невозможно без отдельного сбора мусора и его переработки. Непростая, но крайне важная задача. Как мы ее будем решать, и какой результат получим – зависит от всех нас. У каждого своя важная функция в этом деле: у власти – организовать условия и процессы, у жителей – не пренебрегать сортировкой мусора,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бранный в сетчатых контейнерах мусор планируется вывозить на корсаковский полигон. Там его будут сортировать, прессовать и отправлять на материк. При этом в планах – перерабатывать отходы на острове. К примеру, его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полимерных труб и брусчатки.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оказывать особую поддержку предприятиям, которые займутся переработкой материалов.

В дальнейшем к отдельному сбору мусора присоединятся села, входящие в состав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 также остальные районы области.

Напомним,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по отдельному сбору мусора на Сахалине запусти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Дальнем. Там установили 47 сетчатых контейнера. В целом эксперимент прошел успешно –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отнеслись к нововведению с пониманием, сортируют мусор согласно правилам.

Отметим, внедрение на островах отдельного сбора отходов – первый шаг, необходимый для запус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экотехнопарка, где планируется организовать переработку вторичных материальных ресурсов.

Площадку будут запускать в 2 этапа. В рамках первого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ут проводить вторичную предпродажную подготовку мусора и отправлять отходы на дальнейшую переработку. До конца 2023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мести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экотехнопарк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мощности для вторичной переработки пластика, полиэтиленовых пакетов, картона и бумаги. Сейчас проект находится на стадии разработки.

## В Тымовском открылся центр углублен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для пациентов 65+

Раньше та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было доступно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едицинские центры открываются в разных частях острова, чтобы жителям было удобно проходить современную диагностику, не уезжая далеко от дома. Работа организован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Сразу после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перерезания ленточк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в Тымовском начал принимать первых пациентов. Их отобрали заранее в районной поликлинике.

– Пациенты приходят с первичной диагностикой, чтобы в центре можно было направить именно на ту программу, в которой нуждается конкретный человек. Программы разные – кому-то нужно проверить общее состояние, у других – проблемы с сердцем или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ым аппаратом. К каждому пациенту –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одход,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лавного врача Тымовской ЦРБ Михаил Пузырев.

Подготовка к открытию центра велась с конца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помещениях провел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риобрели ново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роцедур и врачебных приемов, ультразвуковой, функциональ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и компьютерной томографии.

– Давно беспокоит желудок, собиралась ехать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 тут предложили пройти все на месте. Сегодня и врачи посмотрели, и эндоскоп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сделали. Все сразу – никогда такого не было, никаких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талонов, – поделилась пациентка Татьяна Петрова.

Ежедневно в центр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нимать до 50 человек. Кроме жителей поселка, здесь смогут обследоваться и жители близлежащих районов.

Программы углубленн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постепенно будут внедряться и в других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комплексную диагностику начнут проводить во второй и четвертой поликлиник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в Холмске, Поронайске, Углегорске, Охе. Пациентов будут обследовать по отдель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о заболеваниям мочеполовой сферы,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системы,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органов зрения, неврологических и эндокринных патологий. А на базе Томаринской ЦРБ летом заработает еще один центр углублен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аналогичный тем, что сегодня действую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Тымовском.

Благодаря принятым мерам пройти современное комплекс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смогут пройти более 70 тысяч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из группы рис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러시아서 한국문화제 'K-FEST 2021' 개최 6월 30일까지

##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2020-2021 한-러 상호 교류의 해' 행사 일환 한국의 공연, 전시, 만화, 관광 등 소개하는 20여 프로그램 대면·비대면으로 진행

주러시아한국문화원은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와 공동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한국문화제 'K-FEST 2021'을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5월 11일 밝혔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2020-2021 한-러 상호 교류의 해' 행사 일환으로 열리는 'K-FEST 2021'은 한러 양국 문화부의 후원과 양국 주요 문화예술기관들과의 협력 아래 진행된다.

한국문화제는 한국의 공연, 전시, 만화, 관광부터 길거리 음식, 케이팝, 영화에 이르기까지 2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스트라한, 로스토프나도누 4개 도시에서는 대면행사가 개최된다.

5월 11일에는 'K-FEST 2021' 개막 공연으로 '한-러 클래식 명곡의 밤'이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에서 열렸다. 러시아 국립 카펠라 오케스트라와 함께 러시아와 한국의 성악가들이 한국의 가곡을 포함한 클래식 명곡들을 연주했다.

6월 7일에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현대무용축제인 '오픈 룩(Open Loo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이얼로그-한국과 러시아의 춤&음악(Dialog-Dance & Music of Korea and Russia)'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다.

이외에도 국악 공연, 애니메이션 상영회, 민화 전시회, 영화상영회가 대면행사로 개최돼 현장에 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 관광 콘텐츠, 한국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국악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제작한 우수 문화예술 콘텐츠, 한-러 디자인 전시회, 한국음식 조리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 상으로 제공한다.

누구나 온라인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만화·애니메이션 공모전, 케이팝 커버댄스 경연대회, 퀴즈대회, 한식 사진 챌린지, SNS 댓글달기 이벤트 등이 준비돼 있다.

이밖에 한국문화를 일러스트로 소개하는 지하철 광고를 러시아에서 최초로 시행한다. 모스크바(5월 16일 ~ 6월 15일)와 상트페테르부르크(6월 1일 ~ 6월 30일) 지하철 차량 내부에서 총 15개의 배너 광고판과 10초짜리 영상을 통해 한식, 한옥, 한복, 관광, 한글 등을 시각화한 이미지 광고가 진행된다. 이중 11개는 한국문화 아이템으로만 구성됐고, 4개는 한-러 문화가 어우러진 이미지다. 또한 각 배너 광고에 부착된 QR 코드를 통해 해당 문화 아이템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2020-2021 한-러 상호 교류의 해' 행사 일환으로 열리는 'K-FEST 2021' 포스터 (사진 주러시아한국문화원)

'K-FEST 2021' 콘텐츠는 주러시아한국문화원 홈페이지(www.info-korea.ru)나 유튜브(www.youtube.com/kculturerus),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러시아한국문화원 SNSVkontakte: www.vk.com/kculturerus, 페이스북: www.facebook.com/kculturerus,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culturerus, 틱톡: https://www.tiktok.com/@kcultrurerus

(출처: 재외동포신문)

# "한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추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한글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접수 6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제575돌 한글날에 한글의 진흥 및 발전에 공적이 큰 인사들을 포상하기 위해 '2021년도 한글발전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5월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1990년부터 매년 한글날(10월 9일)을 기념해 한글의 연구, 교육 및 보급에 공헌한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그들을 격려하고자 한글발전유공 정부 포상을 하고 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총 255명에게 한글발전유공 포상을 수여했으며, 작년에는 ▲'보관문화훈장' 김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화관문화훈장' 현홍문 중국조선어정보처리학회 이사장 ▲'문화포장' 차재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부회장, 이봉원 한말글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 강재형 문

화방송 아나운서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는 한글과 국어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10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포상 대상자는 ▲한글의 우수성 선양 ▲국어학·국문학 등의 연구 ▲한글의 세계화 ▲한글 유관 산업 진흥 등 한글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 온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단체이다.

문체부는 다수의 민간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심사와 문체부 서훈 공적 심사, 대국민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추천 후보자 중에서 최종 포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글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한 이를 적극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개인, 기관, 단체 등 누구나 제한 없이 후

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는 6월 16일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후보자 추천 서식 등 포상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알림소식) 또는 대한민국상훈 누리집(www.sanghu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류를 통해 촉발된 우리 문화에 대한 외국의 관심은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한류'로서의 한글의 세계적 확산은 국가 위상을 한 차원 더 높이고 있다"며 "이번 포상을 통해 한글의 발전과 보급·확산에 공헌한 많은 분이 공적을 인정받아 자긍심을 높이고 한글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우리말로 깨달다] 온고지신과 스승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로 공자의 말씀입니다. 논어에서 온고지신이 쓰이는 대목은 선생의 보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온고지신 때문에 선생 일도 해롭지하다는 공자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온고지신은 선생에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온고지신이 왜 선생에게 보람을 줄까요? 온고지신의 의미를 밝히다 보면 선생 곧 스승의 역할이나 기쁨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온고지신의 해석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말이 명확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옛것도 새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배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것만 강조해서도 부족하고, 새것만 쫓아서도 안 된다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나온 것도 공부하고, 세상에 새로 생기는 지식도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선생 일을 하면서 선학들의 연구를 살피고 배우는 것이 기쁩니다. 또한 늘 새롭게 나타나는 지식도 즐겁게 배웁니다. 학생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우는 그 자체로도 기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스승의 보람에 대한 느낌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 방점이 '온고(溫故)'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익히면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옛것을 익히고 뒤에 '그것으로 미루어'라는 해석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것을 아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실제로 논어를 살펴보면 공자께서도 옛것을 공부하는 즐거움(好古)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문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의 생각을 담아서 온고지신의 해석을 좀 더 깊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익히다는 말인 '온(溫)'은 '따뜻하다, 삶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익히다'와 통하는 말입니다. 배우는 것이 익히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 재미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잠깐 스치듯 '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꼭 살아야 합니다. 사골을 끓이듯이 고기나 뼈를 오랜 시간 꼭 고는 것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살짝 넣어서는 결코 속까지 익지 않습니다. 깊이 익힐 수 없습니다.

전에 전한 선생님과 온고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 좋은 세상' 이야기를 나눌 때 온고지신을 이야기하면서 옛것이 다 좋은 것이었음을 아니까 새로운 것도 다 좋을 것임을 안다는 뜻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입니다. 옛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다 좋은 세상임을 깨닫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지나고 보면 다 좋은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일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 좋은 세상이니 안심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온고지신은 깨달음의 어휘입니다.

선생은 이러한 깨달음을 제자에게 전합니다. 제자 역시 스승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논어 맨 처음에 나오는 '배우고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세상입니다. 우리는 옛것을 살피고 또 살피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사람들과 나눕니다. 기쁨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보면 공자의 말씀처럼 참으로 선생 일은 해롭지 않은 기쁜 일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Наш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коллектив не какой-то особенный, — говорит Валентина Михайловна. — В "Браво" приходят ребята, которые по-настоящему хотят танцевать, быть на сцене, заниматься творчеством. А моя задача как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им в этом помочь. Мы работаем не ради титулов и наград, а стараемся подарить окружающим хорошее настроение, поделиться с ними своим душевным теплом, талантом.

## 사할린에서 '에콜라타(환경을 보호하는 아이들)'대회 일환으로 우수 게시판 결정

사할린주에서 전국 우수 게시판 경연 지역 예선이 마무리되었다. 경연은 2개 부문 - 유치원의 <유치원생으로서의 에콜라타>, 학교 기관들의 <자연을 보호하는 청소년으로서의 에콜라타> - 으로 진행되었다. 대회에 사할린주 11개 구역에서 37개 학교와 유치원들이 참가했다. 경연 결과 유치부에서는 코르사코브의 7호 유치원인 '솔니쉬코'와 호에 마을(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구역) 중학교가 우승했다. 이들의 작품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연방 경연대회 본선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 우승자와 수상자들에게 사할린주 교육부가 상장을 수여했다. 경연대회는 주 교육부와 주 학교 밖 교육활동

센터가 주최했으며 경연 심사위원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청소년 관광센터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고 주 학교 밖 교육 활동센터 홍보실이 전했다.

## Лучший стенд в рамках конкурса "Эколята" определили на Сахалине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лучший стенд (уголок) завершил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го проводили в двух номинациях: "Эколята-дошколята" — в дошко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Эколята — молодые защитники природы" — 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37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школ из 11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итогам победителями в своих номинациях стали детский сад №7 "Солнышко" Корсакова и СОШ Хоэ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район). Их работы направлены на федераль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с 20 мая по 30 июня. Кроме того,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награждаются диплома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нкурса выступили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внешне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В жюри вошли специалисты центра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туризм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ЦВВР.

## 모스크바의 주민들 다른 러시아 주민들보다 더 자주 사할린 방문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블라고웨셴스크 3개 지역이 가장

자주 유즈노사할린스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투루(Tutu.ru)' 여행 관광 서비스 분석센터가 정보를 제공했다.

분석 자료에는 왕복 항공 이용권의 평균 가격에 대한 자료도 밝힌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격은 유즈노사할린스크 - 쿠릴스크 노선 (11,900루블리), 그 다음으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 유즈노쿠릴스크 노선 (12,162루블리)이며, 하바롭스크까지는 13,427루블리, 오히 13,900루블리, 이르쿠츠크 23,243루블리, 모스크바 24,082루블리이다. 가장 고가의 항공 이용료는 유즈노사할린스크-노워시비리스크 (34,164루블리), 유즈노사할린스크-심페로폴리는 36,459루블리로 나타났다.

## Москвичи чаще других россиян посещают Сахали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чаще всего прилетают из Москвы, Хабаровска, Благовещенска.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едоставил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сервиса поездок и путешествий Туту.ру.

Также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приводятся данные по среднему чеку на авиабилеты туда-обратно. Самым дешев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стал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урильск (11 900 рублей).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Южно-Курильск (12 162 рубля). Затем идут полеты в Хабаровск (13 427), Оху (13 900 рублей). Больше 20 тысяч обойдутся перелеты в Иркутск (23 243 рубля) и Москву (24 082 рубля). Самыми дороги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ста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Новосибирск (34 164 руб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имферополь (36 459 рублей).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http://med.sakh.com)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